



벤츠 A-클래스

기아차 씨드·벤츠 A-클래스 '올해의 차' 될까



기아차 씨드

유럽·북미 '올해의 차' 최종 후보 명단에 올라 '주목'
현대차 제네시스·코나, 재규어 I-Pace도 이름 올려

올해 세계 자동차 시장을 달군 최고의 차량은 뭘까.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올해의 차' 시상을 앞두고 후보군에 오른 차량에 눈길이 쏠린다. 최종 후보에 오른 차량을 보면 지역별 시장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유럽에선 씨드·벤츠 등 해치백 모델 인기=유럽에서 실시하는 '유럽 올해의 차'의 경우 현재 최종 후보까지는 공개됐다. 유럽 올해의 차는 총 60명의 유럽 자동차 전문가들이 올해 유럽서 출시한 38종의 신차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최종 수상 차량은 내년 3월 제네바모터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후보로는 기아차 준중형 해치백 씨드를 비롯, 포드 포커스(Focus), 벤츠 A-클래스, 푸조 508, 시트로엥 C5 에어크로스, 재규어 I-Pace, 알파인 A110 등 7개 모델이 올라있다.

아시아 브랜드로는 기아가 유일하다. 씨드는 지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유럽 올해의 차 최종 후보

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씨드는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슬로바키아 질리나 공장에서 생산하는 유럽 전용 모델이다.

기아차로는 지난해 스텔리아에 이어 세 번째다. 모델 면면을 보면 '해치백(뒷좌석과 트렁크가 연결된 형태)'이 인기를 끌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씨드는 지난 6월부터 유럽 전역에 순차적으로 출시된 뒤 지난달 판매량이 9327대로 전년도 동월 대비 21.5% 증가하는 등 2개월 연속 9000대 판매를 돌파했다. 벤츠에서 가장 작은 체급을 담당하는 A 클래스도 후보에 오른 상태다. A 클래스는 공개 당시 가장 주목 받는 혁신적인 콤팩트 모델로 평가받으며 고급스러움도 갖췄다.

◇북미에서는 제네시스·코나가 최종후보에=미국에서 실시하는 '북미 올해의 차'는 세단·유틸리티·트럭 부문으로 나뉘어 선정하는데, 세단 부문에는 제네시스 G70, 혼다 인사이트 등이 후보에 올라 있

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은 2016년에 발표한 '2017 북미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G90가 선정된 이후 두 번째다. 2009년에는 현대차 제네시스(BH)가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된 바 있다. 제네시스 G70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모터트렌드' 어워즈 시상식에서는 19개 후보 차량과의 경쟁에서 올해의 차에 선정됐었다.

유틸리티 부문에는 현대차 코나와 아쿠라 RDX, 재규어 I-페이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유틸리티 부문 최종 후보에 오른 한국 브랜드는 코나가 처음이다.

26회째를 맞는 북미 올해의 차는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전문 기자단이 투표로 선정하며, 내년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현대차 코나

현대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 시동 걸자 인기몰이

'2018 LA 오토쇼' 세계 최초 공개
사전계약 첫날 3468대 계약 실적

현대차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가 베일을 벗자마자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2018 LA 오토쇼'에서 팰리세이드가 세계 최초로 공개된 뒤 이뤄진 사전계약 첫날 3468대의 실적을 올렸다.

사전계약 첫날 실적만 보면 포드 익스플로러와 혼다 파일럿 등 동급 외산 대형 SUV의 지난해 평균 5개월 치(750대×4.6개월) 판매량에 육박하는 수이다.

또 지난해 연간 국내 대형SUV 산업수요(4만 7000대)의 7% 수준에 달하는 실적을 하루만에 올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역대 현대차에서도 그랜저 IG(1만6088대), 싼타페TM(8193대), EQ900(4351대) 다음으로 첫날 사전계약 대수가 많다는 게 현대차 설명이다.

특히 합리적 가격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공개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팰리세이드는 동급 최대 수준의 넓은 실내 공간과

첨단 사양을 적용했음에도, 가장 높은 트림(디젤 프레스티지 4177만원-4227만원)에 선택 가능한 옵션을 더해(727만원) 4904만원-4954만원으로 5000만원이 넘지 않는다. 동급 외산 SUV 대비 500만~600만원 이상 저렴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8인승 대형 SUV 팰리세이드는 차체 크기의 경우 전장 4980mm에 달하고 전폭 1975mm, 전고 1750mm, 축간거리(휠베이스) 2900mm로 축간거리의 경우 동급 최장 수준을 확보했다.

실내 공간 최적화를 통해 동급 최대의 2열 레그룸(1077mm)과 성인이 탑승해도 불편함이 없는 3열 헤드룸을 구성한 게 특징이다.

3열 시트 후방은 28인치 여행용 가방 두 개나 골프백 두 개를 실을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을 갖췄다.

버튼을 누르면 3열 좌석을 편리하게 접었다 펼 수 있고 2열 좌석을 앞으로 이동하면서 접을 수 있다.

각종 첨단 편의 사양과 커넥티비티(연결) 기술도 많이 적용됐다.

안전사양 면에서는 '허모 주행 모드'가 국산 SUV 최초로 적용, 네 가지 기술의 상호작용을 통해 험난한 도로 환경에서도 주행할 수 있게 돕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배출가스 5등급 차 광주·전남 23만8000여대 운행 중

광주 7만대·전남 16만대

전국에서 운행중인 노후 경유차 등 차량 269만대가 내년 2월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 운행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다. 광주·전남에서는 23만8000여대에 이른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DB) 기술위원회'는 전국에 등록된 차량 2304만대 가운데 269만5000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

269만대 중 경유차가 약 266만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가 약 3만대로, 경유차는 대부분 2008년 이전 등록된 차량이다. 휘발유·LPG 차는 1987년 이전 생산된 차량으로, 삼원촉매장치(배기가스 중 유해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을 감소하는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탓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아 5등급으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경우 56만4001대가 5등급 차량으로 분류돼 가장 많았고 서울(27만9709대)이 뒤를 이었다. 광주는 7만1427대(경유 7만689대, 휘발유·LPG 738대), 전남은 16만6608대(경유 16만5690대, 휘발유·LPG 918대)가 5등급으로 분류됐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이들 지역에서는 무인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이 이뤄진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THE VIENNA BERLIN MUSIC CLUB



PHILHARMONIX

2018 필하모닉스 내한공연

베를린필·빈필 단원으로 구성된 경이로운 앙상블



베를린필·빈필 단원으로 구성된 경이로운 앙상블

광주일보는 창사 66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과 빈 필 단원으로 구성된 필하모닉스(Philharmonix)비엔나 베를린 뮤직 클럽 공연을 개최합니다. 베를린 필 악장소 아 벤틀릭스를 비롯해 세바스티앙 카를리(바이올린), 티리 페레네(비올라) 빈 필, 스테판 클로스(첼로)베를린 필, 오트 리츠(더블베이스)빈 필 수석, 다니엘 오렌장비(클라리넷) 빈 필 수석, 크리스토퍼 트라슬러(피아노) 등 7명으로 구성된 필하모닉스는 이번 공연에서 정통 클래식과 팝스·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연주 레퍼토리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번',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협주곡', 루크를 윈의 '보헤미안 랩소디', 스텔링의 '잉글리시맨 인 뉴욕' 등입니다. 클래식 애호가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2018.12.17 [월] pm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광주일보 | 아시아문화 | 후원 YOUNGSAN 영산그룹 | 티켓 R석 88,000원 | S석 66,000원 | A석 33,000원 | 예매 티켓링크 1588-7890 문의 062-220-0541